

중한 번역 한국어 인칭대명사의 주어별 명시·생략 양상 연구*

— 『광인일기(狂人日記)』 번역본을 중심으로

가속청**. 이아형***

목 차

1. 서론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3. 중한 번역에서 한국어 인칭대명사 주어별 명시 및 생략 양상
 - 1) 1인칭 주어 명시 및 생략
 - 2) 2인칭 주어 명시 및 생략
 - 3) 3인칭 주어 명시 및 생략
4. 결론

국문초록

본 연구는 루쉰의 『광인일기』 중국어 원문과 세 종의 한국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중국어 원문에 명시된 인칭대명사 주어가 한국어 번역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我·我們, 你·你们·您, 他·她·他们 등이 절의 주어로 직접 나타난 사례에 한정하였다. 한국어 번역문의 대응 양상은 대명사 명시, 명사·호칭어 명시, 주어 생략, 문장 재구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1인칭 주어는 화자의 정체성이나 행위 주체를 강조할 때 명시되고, 화자 동일성이 분명한 담화 맥락에서는 생략되는 경향을 보였다. 2인칭 주어는 비난·경고·설득 장면에서 대명사로 명시되거나, 인물 관계에 따라 ‘형’, ‘형님’ 등의 호칭어로 전환되었다. 3인칭 주어는 인물 또는 집단의 지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번역학과 박사과정생(제1저자)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중전공 부교수(교신저자)

시 대상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명사나 관계 호칭어로 실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원문의 명시 주어만을 분석함으로써, 중한 문학 번역에서 인칭대명사 주어의 번역이 담화 맥락, 인물 관계 및 지시 대상의 명료성과 관련된 선택임을 밝히고자 하였다.

키워드: 중한 번역, 인칭대명사 주어, 주어 명시, 주어 생략, 관계 호칭어, 『광인일기』, 문학 번역

1. 서론

한국어와 중국어는 모두 담화 맥락을 통해 주어를 복원할 수 있는 경우 주어를 표면적으로 생략할 수 있는 언어이다. 그러나 두 언어에서 주어의 명시와 생략이 실현되는 조건 및 기능은 동일하지 않다. 특히 중국어 원문에서 인칭대명사 주어가 명시되어 있을 때,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는 원문의 대명사 주어가 그대로 유지되기도 하고, 관계 호칭어 또는 명사구로 전환되기도 하며, 문맥상 복원이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생략되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단순한 문장 성분의 대응 문제를 넘어 인물 지시, 화자와 청자의 관계, 서사 시점의 유지, 담화 흐름 및 문체적 자연성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문학 번역에서는 특히 인칭대명사 주어의 처리 방식이 중요하다. 문학 텍스트에서 인칭대명사는 단순히 행위의 주체를 표시하는 문법적 요소에 그치지 않고, 서술자의 시점, 인물 간 거리, 발화의 직접성, 심리적 긴장 및 서사적 리듬을 형성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따라서 중국어 원문에 명시된 인칭대명사 주어가 한국어 번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중한 번역에서의 통사적 대응 양상뿐 아니라 번역자가 선택한 담화적, 화용론적 전략을 분석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한국어와 중국어의 주어 실현 양상을 비교한 기존 연구는 크게 세 흐름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한국어와 중국어의 주어 개념, 주어 생략, 담화 기능을

통사적·화용론적 관점에서 비교한 연구이다. 김선민(2000), 이연정(2014), JIA SHEN(2014) 등은 양 언어의 주어 기능과 생략 조건을 비교하면서, 주어의 실현 여부가 문장 구조뿐 아니라 화자, 청자 관계와 담화 맥락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둘째, 실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중 또는 중한 번역에서 주어 생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핀 연구이다. 金慧婷(2014)은 한중 양 언어의 소설 텍스트를 대상으로 주어 생략의 빈도와 양상을 비교하였고, 白水振, 金立鑫, 白蓮花(2014), 최윤곤, 주선(2017), 예혼이(2019) 등은 문학 텍스트나 신문 텍스트를 바탕으로 주어 생략의 유형과 번역상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어 생략이 번역 과정에서 중요한 변환 지점이 된다는 사실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셋째, 인칭대명사에 주목하여 한중 또는 중한 번역 양상을 분석한 연구도 이루어졌다. 韓希昌(2011), 백수진(2011)은 인칭대명사의 사용 특성과 교육적 문제를 중심으로 한중 차이를 논의하였으며, 김려(2010), 정기(2022)는 중한 번역에서 인칭대명사가 생략, 인칭 전환, 호칭 전환, 범주 외 치환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임소정, 이아형(2024)은 한국어 소설 원문과 중국어 번역문을 대상으로 인칭대명사 주어의 명시·생략 양상을 분석하여, 번역 과정에서 주어 정보가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되거나 변형되는지를 논의하였다.

그러나 인칭대명사 연구 가운데 상당수는 학습자 오류, 교육 방안 또는 인칭대명사 일반의 사용 특성에 초점을 두고 있어, 문학 번역에서 중국어 원문의 명시된 인칭대명사 주어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를 인칭별로 구체화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또한 원문에서 주어가 명시된 경우와 생략된 경우를 함께 분석하면, 중국어 원문의 무표 주어가 한국어 번역에서 어떻게 처리되었는지와 중국어 원문의 명시 주어가 한국어에서 생략되었는지가 동일한 분석 범주 안에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한국어 번역에서 나타나는 주어 생략이 원문의 명시 주어에 대한 번역 전략인지, 원문 자체의 주어

생략을 유지한 결과인지 구분하기 어려워진다.

이에 본 연구는 분석 대상을 중국어 원문에 명시적으로 실현된 인칭대명사 주어로 한정한다. 구체적으로 중국어 원문에서 我/我們, 你/你們/您, 他/她/他們 등 인칭대명사가 해당 절의 주어로 실현된 경우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반면 원문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문맥을 통해서만 복원되는 사례는 본 연구의 분석 표본에서 제외한다. 이러한 범위 설정은 중국어 원문에 명시된 인칭대명사 주어가 한국어 번역에서 유지, 전환, 생략되는 과정을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는 루원의 『광인일기』 중국어 원문과 세 종의 한국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하며 중국어 원문의 명시된 인칭대명사 주어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 표현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한다. 첫째, 원문의 인칭대명사 주어가 한국어에서도 ‘나’, ‘우리’, ‘당신’, ‘그’, ‘그들’ 등 인칭대명사 주어로 실현되는 경우이다. 둘째, 원문의 인칭대명사가 ‘형’, ‘큰형’, ‘형님’ 등 관계 호칭어 또는 명사구로 전환되어 명시되는 경우이다. 셋째, 중국어 원문에는 인칭대명사 주어가 명시되어 있으나 한국어 번역에서는 문맥상 주체를 복원할 수 있어 주어가 생략되는 경우이다. 넷째, 원문의 주어가 번역문에서 다른 문장 성분으로 전환되거나 문장 구조의 재구성을 통해 처리되는 경우이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특히 한국어 번역에서의 주어 명시와 생략 양상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명시된 주어가 인칭대명사로 유지되는 경우와 호칭어, 명사구로 전환되는 경우를 구분하여 검토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어 원문에 명시된 1인칭, 2인칭, 3인칭 대명사 주어는 한국어 번역에서 각각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는가?

둘째, 중국어 원문에 명시된 인칭대명사 주어가 한국어 번역에서 그대로 유지되거나, 관계 호칭어, 명사구로 전환되거나, 생략되는 데에는 어떠한 담화적, 화용론적 조건이 작용하는가?

셋째, 세 한국어 번역본은 중국어 원문에 명시된 인칭대명사 주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어떠한 공통점과 차이를 보이는가?

본 연구는 중국어 원문에 명시된 인칭대명사 주어만을 분석 단위로 설정함으로써, 중한 번역에서 원문의 명시적 주어 정보가 한국어 번역문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되거나 변형되는지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특히 1, 2, 3인칭별로 명시, 생략, 호칭어 전환의 양상을 구분하여 분석함으로써, 인칭대명사 주어의 번역이 단순한 문법적 대응이 아니라 담화 맥락, 인물 관계, 지시 대상의 명확성 및 문체적 자연성과 관련된 선택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하 2장에서는 연구 대상과 분석 기준을 제시하고, 3장에서는 중국어 원문에 명시된 1인칭, 2인칭, 3인칭 대명사 주어가 한국어 번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는지를 분석한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를 논의한다.

2.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루쉰(魯迅)의 『광인일기(狂人日記)』 중국어 원문과 이를 번역한 세 종의 한국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한다. 중국어 원문은 『루쉰전집(魯迅全集)』 제1권에 수록된 「광인일기」를 사용하며, 한국어 번역본은 서로 다른 시기에 출간된 세 번역본을 선정하였다. 『광인일기』는 1인칭 서술자의 내면 독백, 인물 간 대화, 비난과 설득의 발화, 주변 인물의 행위와 태도에 대한 관찰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작품이다. 따라서 1인칭/2인칭/3인칭 대명사 주어가 서로 다른 담화 환경에서 실현되며, 중국어 원문의 명시된 인칭대명사 주어가 한국어 번역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분석하기에 적합한 자료라고 판단된다.

또한 단일 번역본만을 분석할 경우 특정 번역자의 문체적 선호, 인물 관계 해석, 번역 전략이 결과에 크게 반영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세 번역본을 병렬적으로 비교하여, 중국어 원문의 명시된 인칭대명사 주어가 한국어 번역

에서 공통적으로 유지·전환·생략되는 양상과 번역본별 차이를 함께 검토하고자 한다.

구분	작품명	저자	역자	발행연도	출판사
ST	『광인일기(狂人日記)』	루쉰	-	2005	인민문학출판사
TT1	『아Q정전: 루쉰 소설전』	루쉰	전형준	2023	창비
TT2	『광인일기』	루쉰	이옥연	2014	문학동네
TT3	『아큐정전: 루쉰의 소설』	루쉰	조관희	2018	마리북스

〈표 1〉 분석 대상 텍스트

본고에서는 중국어 원문을 ST(Source Text), 세 한국어 번역본을 각각 TT1, TT2, TT3(Target Text)로 표기한다.

2) 분석 범위와 분석 단위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은 중국어 원문에서 명시적으로 실현된 인칭대명사 주어에 한정한다. 즉, 중국어 원문에서 我/我們, 你/你們/您, 他/她/他們 등 인칭대명사가 해당 절의 주어로 직접 나타난 경우만을 추출하여 분석한다. 이에 따라 원문의 인칭대명사 주어가 한국어 번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되거나 변형되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반면 중국어 원문에서 주어가 표면적으로 실현되지 않고 문맥을 통해서만 복원되는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앞선 문맥에서 1인칭 화자가 이미 확립되어 있으나 후행절에서 我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 또는 선행 문장에 제시된 3인칭 인물이 후행절에서 무표 주어로 이어지는 경우는 본 연구의 표본으로 삼지 않는다. 이는 중국어 원문에서 주어가 명시되지 않은 사례와, 중국어 원문에는 주어가 명시되어 있으나 한국어 번역에서 생략된 사례를 구분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인칭대명사가 문장 안에 나타나더라도 주어가 아닌 목적어, 관형어,

소유격 표현 또는 기타 문장 성분으로 사용된 경우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예를 들어, 我를 포함하더라도 ‘나를’, ‘나의’와 같이 목적어나 소유 관계를 나타내는 경우는 본고의 분석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 본 연구가 주목하는 대상은 중국어 원문에서 통사적으로 주어 기능을 수행하는 인칭대명사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분석 단위는 중국어 원문의 절(clause)로 설정한다. 하나의 인칭대명사 주어가 연동 구조 또는 병렬 술어 구조에서 두 개 이상의 술어를 지배하더라도, 해당 인칭대명사 주어는 하나의 분석 사례로 처리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我가 ‘말하다’, ‘웃다’, ‘일어서다’ 등 여러 술어와 연결되는 경우에는 여러 개의 주어 생략 사례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명시 주어 사례로 간주한다. 반대로 동일한 문장 안에서도 각각의 절에 인칭대명사 주어가 반복적으로 명시된 경우에는 절별로 독립된 사례로 처리한다.

직접화법 안에 나타나는 인칭대명사 주어도 해당 발화절의 주어로 기능할 경우 분석 대상에 포함한다. 다만 중국어 원문과 한국어 번역문의 문장 분절 방식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문장부호나 문장 수가 아니라 의미 대응 관계를 기준으로 대응 구간을 설정한다. 즉, 중국어의 한 문장이 한국어에서 두 문장으로 나뉘거나, 반대로 여러 문장이 하나의 문장으로 통합된 경우에도 원문의 명시된 인칭대명사 주어가 어떠한 한국어 표현으로 실현되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3) 한국어 번역문의 주어 실현 유형과 판정 기준

중국어 원문에 명시된 인칭대명사 주어가 한국어 번역에서 실현되는 방식은 크게 네 유형으로 분류한다. 이러한 분류는 한국어 번역에서 원문의 인칭대명사 주어가 단순히 유지되거나 생략되는 데 그치지 않고, 관계 호칭어, 명사구, 문장 재구성 등의 방식으로 변형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유형	판정 기준	예시
대명사 명시	중국어 원문의 인칭대명사 주어가 한국어에서도 인칭대명사 주어로 실현된 경우	我→나/나는, 你→당신/너, 他→그/그는
명사·호칭어 명시	중국어 원문의 인칭대명사 주어가 한국어에서 관계 호칭어 또는 명사구로 전환되어 실현된 경우	他→형/큰형, 你→형님, 他們→사람들/저들
주어 생략	중국어 원문에는 인칭대명사 주어가 명시되어 있으나 한국어 번역문에는 이에 대응하는 주어가 표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	我說→Ø 말했다, 你快走→Ø 어서 가라
문장 재구성	원문의 인칭대명사 주어가 한국어 번역에서 주어 이외의 성분으로 전환되거나, 피동·비인칭 표현·문장 분할 및 통합 등으로 처리된 경우	他关上門→문이 잠겼다, 我覺得→생각이 들었다

〈표 2〉 한국어 번역문의 주어 실현 유형

첫째, ‘대명사 명시’는 중국어 원문의 인칭대명사 주어가 한국어 번역에서도 ‘나’, ‘우리’, ‘너’, ‘당신’, ‘그’, ‘그들’ 등 인칭대명사로 유지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 경우 한국어에서 주격조사나 보조사가 결합한 ‘나는’, ‘내가’, ‘나도’, ‘그는’, ‘그들이’ 등도 모두 대명사 명시로 처리한다.

둘째, ‘명사·호칭어 명시’는 중국어 원문의 인칭대명사가 한국어 번역에서 ‘형’, ‘큰형’, ‘형님’, ‘어머니’, ‘그 사람’, ‘사람들’ 등 관계 호칭어 또는 명사구로 구체화되는 경우이다. 이 유형은 한국어에서 인칭대명사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인물 관계나 지시 대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해 호칭어나 명사구를 선택하는 번역 전략을 포착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2인칭과 3인칭에서는 대명사 직접 대응보다 호칭어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별도의 명시 유형으로 분리하여 분석한다.

셋째, ‘주어 생략’은 중국어 원문에 인칭대명사 주어가 명시되어 있으나 한

국어 번역문의 대응 절에서 주어가 표면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이때 주어가 선행 문맥, 대화 참여자 관계, 명령/청유 표현, 서술 시점 등에 의해 쉽게 복원되는 경우에도 모두 주어 생략으로 처리한다. 다만 한국어 번역문의 선행절에 명시된 주어가 후행절에서 생략된 경우에는, 원문의 해당 인칭대명사 주어가 직접 대응하는 절에서 표면적으로 실현되지 않았다는 점에 따라 생략으로 분류한다.

넷째, ‘문장 재구성’은 중국어 원문의 인칭대명사 주어가 한국어 번역에서 단순한 주어 대응 관계를 벗어나 다른 문장 성분으로 전환되거나, 피동 표현/비인칭 표현/서술 구조의 재편을 통해 처리된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원문의 주어가 한국어에서 목적어, 부사어, 소유 표현으로 전환되거나, 주체를 드러내지 않는 상태 변화 표현으로 번역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유형은 중국어와 한국어의 통사적 구조 차이 및 번역자의 문체적 선택으로 인해 주어의 표면적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례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한국어 번역문의 어순 변화는 주어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는 독립적인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한국어는 조사 체계에 의해 문장 성분의 기능이 표시되므로, 인칭대명사나 호칭어가 문두가 아닌 다른 위치에 놓이더라도 주어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대명사 명시 또는 명사·호칭어 명시로 분류한다.

4) 분석 절차

본 연구의 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어 원문 전체에서 명시적으로 나타난 1인칭, 2인칭, 3인칭 대명사 주어를 전수 추출한다. 이때 각 사례가 실제로 해당 절의 주어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목적어, 소유격, 관형어 등 주어 이외의 기능으로 사용된 인칭대명사는 제외한다.

둘째, 추출된 중국어 원문 사례에 대응하는 한국어 번역문을 TT1, TT2, TT3에서 각각 확인한다. 번역문의 문장 분절 방식이 원문과 다를 경우에는

문장부호나 문장 수가 아니라 원문의 행위, 발화, 인지, 상태 등의 의미 단위를 기준으로 대응 구간을 설정한다.

셋째, 각 번역본에서 중국어 원문의 명시된 인칭대명사 주어가 대명사 명시, 명사/호칭어 명시, 주어 생략, 문장 재구성 중 어떠한 유형으로 실현되었는지를 개별적으로 분류한다. 이를 통해 세 번역본의 결과를 하나의 수치로 즉시 통합하지 않고, 각 번역본이 보이는 고유한 주어 처리 방식을 먼저 제시한다.

넷째, 번역본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칭별 공통점과 차이를 비교한다. 세 번역본 중 두 번역본 이상이 동일한 유형을 보이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사례의 공통적 경향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세 번역본의 처리 방식이 서로 다르거나, 대명사 명시, 호칭어 전환, 생략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이를 번역본 간 변이로 분류하여 별도로 논의한다. 이와 같은 절차는 다수 일치 결과를 통해 전반적 경향을 파악하는 동시에, 개별 번역본의 문체적, 화용론적 차이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섯째, 3장에서는 1인칭, 2인칭, 3인칭의 순서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각 인칭별로 먼저 번역본별 실현 유형과 빈도를 제시하고, 이어서 대명사 명시, 명사·호칭어 전환, 주어 생략, 문장 재구성의 구체적 사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어 원문에 명시된 인칭대명사 주어가 한국어 번역에서 어떠한 담화적·화용론적 조건 아래 유지되거나 변형되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중국어 원문에 명시된 인칭대명사 주어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원문의 무표 주어가 한국어에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문제와 원문의 명시 주어가 한국어에서 생략, 전환되는 문제를 구분한다. 이러한 분석 범위는 중국어 원문의 명시적 주어 정보가 한국어 번역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유지되거나 변화하는지를 보다 명료하게 설명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3. 중국어 원문의 명시된 인칭대명사 주어의 한국어 번역 양상

본 장에서는 중국어 원문에 명시적으로 실현된 인칭대명사 주어를 대상으

로, 해당 주어가 세 한국어 번역본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 대상은 중국어 원문에서 我/我們, 你/你們/您, 他/她/他們 등이 해당 절의 주어로 직접 나타난 사례에 한정한다. 따라서 중국어 원문에서 주어가 생략되어 문맥으로만 복원되는 사례는 본 장의 분석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각 사례는 TT1, TT2, TT3에서 각각 대명사 명시, 명사/호칭어 명시, 주어 생략, 문장 재구성의 네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본 장에서는 세 번역본의 결과를 즉시 하나의 값으로 통합하기보다, 번역본별 처리 양상을 먼저 검토하고 그 후 공통 경향과 차이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1) 1인칭 대명사 주어의 번역 양상

중국어 원문에서 1인칭 대명사 주어는 주로 我와 我們的 형태로 나타난다. 『광인일기』는 1인칭 화자가 자신의 경험, 판단, 감정 및 주변 인물에 대한 의심을 서술하는 작품이므로, 1인칭 주어는 서술 시점과 화자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중국어 원문에 我 또는 我們이 명시되어 있더라도, 한국어 번역에서는 항상 ‘나’ 또는 ‘우리’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 번역문은 화자의 정체성이 이미 충분히 확보된 경우 주어 생략하거나, 문장의 초점을 행위, 상태, 발화 내용에 두는 방식으로 표현을 조정한다.

번역본	본대명사 명시	명사·호칭어 명시	주어 생략	문장 재구성	합계
TT1	40	-	12	1	53
TT2	38	-	11	4	53
TT3	39	-	10	4	53

〈표 3〉 1인칭 대명사 주어의 한국어 번역 실현 유형

가. 화자 정체성 및 행위 주체의 강조에 따른 대명사 명시

중국어 원문의 1인칭 대명사 주어는 화자의 정체성, 입장 또는 행위 주체를 분명하게 드러낼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어 번역에서도 대명사로 명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화자가 자신과 타인을 대비하거나, 자신의 행위와 판단을 전면에 내세우거나, 특정 발화의 책임 주체임을 드러내는 장면에서 이러한 양상이 두드러진다.

(1) 我也是人，他們想要吃我了！

TT1: 나도 사람이니까 그들은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 것이다.

TT2: 나도 사람이기에 그들은 나를 먹으려는 것이다!

TT3: 나 역시 사람이다. 그들은 나를 잡아먹으려 한다.

예문 (1)에서 我是 화자가 자신을 ‘사람’이라는 범주 안에 포함시키면서, 자신을 위협하는 他們과 대립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세 번역본은 모두 ‘나도’, ‘나 역시’와 같이 1인칭 대명사를 명시함으로써 화자와 타자 집단의 대립 구도를 유지하고 있다. 이 경우 1인칭 주어의 명시는 단순히 행위 주체를 밝히는 데 그치지 않고, 화자가 자신의 존재와 처지를 강조하는 담화적 기능을 수행한다.

(2) 我插了一句嘴，佃戶和大哥便都看我几眼。

TT1: 내가 말참견을 하자, 소작인과 형은 나를 힐끔힐끔 쳐다보는 것이었다.

TT2: 내가 한마디 거들자 소작인과 큰형이 둘 다 나를 힐끔거렸다.

TT3: 내가 말참견을 하자 소작인과 형이 나를 흘깃 쳐다봤다.

예문 (2)는 화자의 발화 행위가 사건 전개의 계기가 되는 장면이다. 중국어 원문의 我插了一句嘴는 화자가 대화에 개입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며, 세 번역본 역시 ‘내가 말참견을 하자’, ‘내가 한마디 거들자’와 같이 1인칭 주어를 유지한다. 이는 해당 행위가 이후 등장인물들의 반응과 직접 연결되므로, 행위 주체를 명시하는 것이 서사 전개와 인물 관계의 이해에 기여하기 때

문이다.

(3) 我便問他：“吃人的事，對么？”

TT1: 내가 그에게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옳은 일인가?”라고 묻자

TT2: 내가 그에게 물었다. “사람을 잡아먹는 것이 옳은 일이야?”

TT3: 나는 그에게 물었다. “사람을 잡아먹는 게 옳은 일인가?”

예문 (3)에서도 我是 화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질문을 제기하는 발화 주체이다. 세 번역본은 ‘내가’ 또는 ‘나는’을 사용하여 화자의 질문 행위를 명시한다. 이러한 명시는 화자의 의심과 추궁이 『광인일기』의 서사적 긴장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즉, 1인칭 주어는 단순히 문법적 성분으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라 화자의 인식과 저항적 태도를 가시화하는 역할을 한다.

나. 발화 맥락과 서술 시점의 지속에 따른 주어 생략

중국어 원문에 我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한국어 번역에서는 화자가 누구인지 이미 충분히 파악되는 경우 1인칭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 특히 직접화법 안에서 화자와 청자의 관계가 분명하거나, 1인칭 서술자가 지속적으로 담화의 중심을 이루는 경우에는 ‘나’의 반복을 피하고 발화 내용이나 행위 자체를 전면에 두는 방식이 선택된다.

(4) 我有話告訴你。

TT1: 형님, Ø형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TT2: 큰형, Ø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TT3: 형님, Ø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예문 (4)에서 중국어 원문은 我를 명시하여 발화 주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세 번역본은 모두 ‘나’에 해당하는 주어를 표면적으로 실현하지 않는다. 대신 ‘형님’, ‘큰형’과 같은 호칭어를 제시하여 청자를 먼저 부각하고, 발화 주

체는 문맥을 통해 복원되도록 처리한다. 화자가 누구인지는 이미 앞선 서술과 대화 상황을 통해 확립되어 있으므로, 한국어 번역에서는 1인칭 대명사를 반복할 필요가 줄어들다.

(5) 我只有几句话, 可是說不出來。

TT1: Ø몇 마디만 하면 되는데, 말이 잘 안 나옵니다.

TT2: Ø간단한 이야기인데, 말을 꺼내기가 어렵네요.

TT3: Ø할 말이 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네요.

예문 (5)에서도 중국어 원문의 我는 한국어 번역문에서 모두 생략된다. 이 장면은 화자가 직접 자신의 심리 상태와 발화의 어려움을 드러내는 상황이지만, 한국어에서는 ‘몇 마디만 하면 되는데’, ‘말을 꺼내기가 어렵네요’와 같이 상태나 행위의 어려움 자체를 중심으로 서술한다. 이때 1인칭 주어는 생략되지만, 발화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혼란은 발생하지 않는다.

(6) 我不同你講這些道理; 總之你不該說, 你說便是你錯!

TT1: Ø당신하고 그런 걸 따지고 싶지 않아요. 어쨌든 당신은 그런 소릴 하면 안 돼요.

TT2: Ø당신하고 그런 도리를 따지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TT3: Ø당신하고 그런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아요. 아무튼 당신은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예문 (6)에서는 원문의 我가 세 번역본에서 모두 생략되고, 你는 ‘당신’ 또는 생략된 청자로 처리된다. 이처럼 대화문에서는 발화자와 청자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어 번역문은 1인칭 주어를 표면에 드러내지 않고도 발화 주체를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다. 특히 화자의 태도나 감정이 서술어와 종결 표현을 통해 충분히 드러나는 경우, 주어 생략은 대화의 속도와 긴장감을 높이는 효과를 낳는다.

다. 1인칭 대명사 주어의 번역 양상 소결

1인칭 대명사 주어는 화자의 정체성, 행위 주체, 타자와의 대비가 중요한 경우 한국어 번역에서도 ‘나’, ‘내가’, ‘나는’, ‘우리’ 등의 형태로 명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화자가 서사의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거나 대화 상황에서 발화 주체가 자명한 경우에는 주어가 생략될 수 있다. 따라서 1인칭 주어의 명시와 생략은 단순히 중국어와 한국어의 문법적 차이로만 설명되기보다, 화자의 위치를 전면화할 필요가 있는지, 또는 화자의 정체성이 이미 문맥상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번역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2) 2인칭 대명사 주어의 번역 양상

중국어 원문에서 2인칭 대명사 주어는 你, 你們, 您 등의 형태로 나타난다. 『광인일기』에서 2인칭 주어는 주로 화자와 청자 사이의 대립, 비난, 경고, 설득, 명령 및 관계 설정과 관련된 장면에서 사용된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중국어의 2인칭 대명사가 그대로 ‘너’, ‘당신’, ‘당신들’로 번역되기도 하지만, 청자와의 관계를 드러내는 호칭어로 전환되거나, 명령·요구의 종결 표현을 통해 주어 없이 실현되기도 한다.

번역본	본대명사 명시	명사·호칭어 명시	주어 생략	문장 재구성	합계
TT1	3	2	6	-	11
TT2	4	2	5	-	11
TT3	5	2	4	-	11

〈표 4〉 2인칭 대명사 주어의 한국어 번역 실현 유형

가. 비난·경고의 직접성에 따른 대명사 명시

중국어 원문의 2인칭 대명사는 청자 집단을 직접 지시하거나, 비난과 경고의 대상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경우 한국어 번역에서도 ‘당신’, ‘당신들’과 같은 대명사로 명시되는 양상을 보인다.

(7) 你們可以改了, 從真心改起!

TT1: 당신들은 고칠 수 있어, 진심으로 고치라구!

TT2: 당신들은 고칠 수 있어. 진심으로 고쳐야 해!

TT3: 당신들 고쳐먹을 수 있어. 진심으로 고칠 수 있다고!

예문 (7)에서 你們은 특정한 청자 집단을 직접 지시하며, 화자가 이들에게 변화와 반성을 요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세 번역본은 모두 ‘당신들’을 명시하여 비판과 설득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경우 2인칭 대명사의 명시는 발화의 직접성을 높이고, 화자의 경고가 향하는 대상을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8) 你們要不改, 自己也會吃盡。

TT1: 당신들이 고치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다 잡아먹힐 거야.

TT2: 고치지 않으면 당신들도 잡아먹힐 거야.

TT3: 당신들이 고쳐먹지 않으면 자기 자신도 다 잡아먹혀버릴 거야.

예문 (8)에서도 세 번역본은 모두 ‘당신들’을 통해 청자 집단을 명시한다. 다만 TT2는 조건절의 문두에서 주어를 생략하고 후행절에서 ‘당신들’을 제시함으로써, 문장 안에서 주어의 위치를 조정한다. 이는 2인칭 주어의 명시 여부뿐 아니라, 번역자가 비난과 경고의 초점을 어느 절에 두는가에 따라 표현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나. 관계 호칭어로의 전환

중국어 원문의 2인칭 대명사는 한국어 번역에서 항상 인칭대명사로 대응하지 않는다. 특히 청자가 가족 관계나 사회적 관계 속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한국어 번역은 ‘형’, ‘큰형’, ‘형님’과 같은 관계 호칭어를 사용하여 2인칭 대명사를 실현한다.

(9) 他們要吃我, 你一个人, 原也无法可想。

TT1: 그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형님 혼자서는 어쩔 수가 없겠
죠.

TT2: 그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니 형 혼자서야 어찌할 수 없을 것입
니다.

TT3: 저들이 나를 잡아먹으려 하고 있습니다. 형님 혼자서는 어떻게 해
볼 도리가 없겠지요.

예문 (9)의 你是 화자의 형을 지시하는 2인칭 대명사이다. 세 번역본은 이를 ‘형님’ 또는 ‘형’으로 번역하여 청자의 사회적, 가족적 관계를 명시한다. 이러한 번역은 중국어 원문의 2인칭 지시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한국어 독자가 인물 관계를 즉시 파악할 수 있도록 돕는다.

(10) 前天佃戶要減租, 你說過不能。

TT1: 전날 소작인이 도지를 감해달라고 했을 때도 형님은 안 된다고 하
셨었지요.

TT2: 그제 소작인이 세를 깎아달라고 했을 때도 형은 안 된다고 했잖아
요.

TT3: 엇그제 소작인이 소작료를 내려달라고 했을 때도 형님은 안 된다
고 말씀하셨잖아요.

예문 (10)에서도 중국어 원문의 你是 세 번역본에서 모두 ‘형’ 또는 ‘형님’으로 전환된다. 이는 한국어 번역에서 2인칭 대명사의 직접적 사용을 회피한다는 사실만으로 설명하기보다, 해당 인물이 화자와 어떠한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명시하여 발화의 사회적 의미를 구체화한 선택으로 볼 수 있다.

다. 명령/요구 장면에서의 주어 생략

중국어 원문에 你가 명시되어 있더라도, 한국어 번역에서는 명령형이나 요구형 종결 표현을 통해 청자를 충분히 지시할 수 있는 경우 2인칭 주어가 생략된다.

(11) 你說就是。

TT1: Ø말해봐라.

TT2: Ø말해라.

TT3: 그래, Ø말해 보거라.

예문 (11)에서 중국어 원문은 你를 명시하여 발화의 대상을 직접 지시한다. 그러나 세 번역본은 모두 2인칭 주어를 생략하고 명령형 종결 표현을 사용한다. 한국어의 ‘말해봐라’, ‘말해라’, ‘말해 보거라’는 청자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너는’ 또는 ‘당신은’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아도 발화 대상이 자연스럽게 파악된다.

(12) 忍不住大聲說：“你告訴我！”

TT1: 참을 수가 없어서 큰 소리로 말했다. “Ø나한테 말해봐!”

TT2: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Ø얼른 말해!”라고 소리치자

TT3: 참을 수가 없어 버럭 소리를 질렀다. “Ø뭐라 말 좀 해봐!”

예문 (12)에서도 원문의 你는 세 번역본에서 생략된다. TT1은 ‘나한테’라는 목적어를 통해 발화 방향을 드러내고, TT2와 TT3은 명령형 표현만으로 청자에게 요구하는 의미를 실현한다. 이처럼 한국어 번역에서는 명령과 요구의 의미가 종결 표현 및 대화 상황을 통해 전달되므로, 2인칭 주어의 반복적 명시는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라. 2인칭 대명사 주어의 번역 양상 소결

2인칭 대명사 주어는 비난, 경고, 설득과 같이 청자 또는 청자 집단을 직접 지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신’, ‘당신들’로 명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청자의 신원이 가족 관계나 사회적 관계를 통해 구체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형’, ‘형님’, ‘큰형’과 같은 호칭어로 전환된다. 또한 명령/요구 장면에서는 청자가 이미 대화 맥락을 통해 확인되므로, 한국어 번역문은 2인칭 주어를 생략하고 종결 표현을 중심으로 발화의 직접성을 구현한다. 따라서 2인칭 대명사 주어의 번역은 청자와의 관계, 발화의 직접성, 명령성 및 대화 맥락의 공유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3) 3인칭 대명사 주어의 번역 양상

중국어 원문에서 3인칭 대명사 주어는 주로 他와 他們的 형태로 나타난다. 『광인일기』에서는 화자인 ‘나’와 대립하거나 화자의 의심과 관찰의 대상이 되는 인물들이 다수 등장한다. 따라서 3인칭 주어는 인물 지시의 정확성, 등장인물 간 구분, 행위 주체의 식별과 관련하여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한국어 번역에서는 중국어 원문의 3인칭 대명사가 ‘그’, ‘그들’, ‘저들’과 같은 대명사로 유지되기도 하고, ‘형’, ‘큰형’과 같은 관계 호칭어로 구체화되기도 한다.

번역본	본대명사 명시	명사·호칭어 명시	주어 생략	문장 재구성	합계
TT1	25	3	0	2	30
TT2	18	8	1	3	30
TT3	19	8	0	3	30

〈표 5〉 3인칭 대명사 주어의 한국어 번역 실현 유형

가. 인물 및 집단의 지시에 따른 대명사 명시

중국어 원문의 他와 他們은 한국어 번역에서 ‘그’, ‘그들’, ‘저들’ 등으로 명시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대명사 명시는 인물 또는 집단이 수행하는 행위와 발화의 주체를 분명히 하고, 화자와 타자의 대립 구도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13) 他仍然笑着說：“不是荒年，怎麼會吃人。”

TT1: 그는 여전히 웃으면서 “흉년도 아닌데 어떻게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라고 말했다.

TT2: 그가 계속 웃으며 말했다. “흉년도 아닌데 왜 사람을 잡아먹어요.”

TT3: 그는 여전히 웃으며 말했다. “흉년이 아닌데, 왜 사람을 잡아먹지요?”

예문 (13)에서 他是 특정 인물이 발화를 수행하는 주체임을 나타낸다. 세 번역본은 모두 ‘그는’ 또는 ‘그가’를 사용하여 발화 주체를 명시한다. 이와 같은 명시는 화자의 관찰 대상이 되는 인물의 태도와 발화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화자의 불안과 의심이 어떠한 인물을 향하고 있는지를 드러낸다.

(14) 他們會吃人，就未必不會吃我。

TT1: 그들의 사람을 잡아먹는다면, 나를 잡아먹지 못하리라는 법도 없는 것이다.

TT2: 그들의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는 이상 나를 잡아먹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TT3: 그들이 사람을 잡아먹을 수 있다면, 나라고 못 잡아먹을 리 없지.

예문 (14)의 他們은 화자가 위협적으로 인식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세 번역본은 모두 ‘그들’을 명시하여, 화자와 대립하는 집단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한다. 특히 이 장면에서 他們은 단순한 복수 지시를 넘어 화자가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외부 집단을 나타내므로, 대명사 명시는 화자의 인식 구조와 서사적

긴장을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나. 관계 호칭어를 통한 지시 대상의 구체화

중국어 원문에서 他가 반복적으로 사용되더라도, 한국어 번역에서는 이를 ‘그’로 유지하지 않고 ‘형’, ‘큰형’과 같은 관계 호칭어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타난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대명사를 다른 어휘로 교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인물 관계와 지시 대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기능을 수행한다.

(15) 前天狼子村佃戶來說吃心肝的事, 他也毫不奇怪, 不住地点頭。

TT1: 전날 랑즈춘의 소작인이 와서 심장과 간을 먹은 일을 이야기했을 때에도 그는 조금도 이상스러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고개를 끄덕였다.

TT2: 며칠 전에 랑즈춘의 소작인이 와서 심장과 간을 먹은 이야기를 할 때도 형은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은 채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TT3: 그에게 이리 마을 소작인이 와서 심장과 간을 먹은 이야기를 했을 때도 형은 그저 덩덤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예문 (15)에서 중국어 원문의 他는 화자의 형을 가리킨다. TT1은 원문의 인칭대명사 형태를 그대로 살려 ‘그’로 직역한 반면, TT2와 TT3은 이를 ‘형’으로 번역하여 인물의 관계를 명시한다. 한국어 번역에서 TT1과 같이 ‘그’를 고수하기 대신 ‘형’을 사용하는 방식은 해당 인물이 누구인지를 보다 안정적으로 제시하며, 서사 속 여러 인물 사이에서 지시 대상이 혼동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를 가진다.

(16) 母親哭个不住, 他却勸母親不要哭。

TT1: 어머니가 한없이 울자, 그는 어머니에게 울지 마시라고 했다.

TT2: 어머니가 계속 울자 형은 어머니더러 그만 올라고 했다.

TT3: 어머니는 하염없이 울었다. 형은 오히려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했다.

예문 (16)에서도 TT1은 원문의 他를 대명사 ‘그’로 번역하여 지시 대상을 다소 객관적으로 서술한 반면, TT2와 TT3의 他는 ‘형’으로 번역된다. 이때 ‘형’은 단순한 호칭어가 아니라, 화자와 해당 인물의 관계를 드러내는 명사적 표현으로 기능한다. 특히 어머니, 형, 화자 등 가족 구성원이 함께 등장하는 장면에서는 TT1처럼 ‘그’를 유지하는 것보다 ‘형’을 사용하는 방식이 인물 간 관계와 행위 주체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다.

(17) 當初, 他還只是冷笑, 隨後眼光便凶狠起來。

TT1: 처음에 형은 쌀쌀히 웃기만 하더니 나중에는 눈빛이 험악해졌다.

TT2: 처음에는 형이 냉소를 지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눈빛이 점점 험악해지더니

TT3: 처음에 형은 냉소를 지을 뿐이었지만, 뒤이어 눈빛이 험악해졌다.

예문 (17)은 중국어 원문의 他가 세 번역본에서 모두 ‘형’으로 전환된 사례이다. 원문의 3인칭 대명사는 한국어 번역에서 관계 호칭어로 구체화되며, 이를 통해 화자가 관찰하고 의심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명확해진다. 이러한 번역 전략은 3인칭 대명사의 반복을 줄이는 동시에, 인물 관계에 기반한 서사적 지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 3인칭 대명사 주어의 번역 양상 소결

3인칭 대명사 주어는 화자와 대립하는 인물 또는 집단의 행위와 발화를 분명히 해야 하는 경우 ‘그’, ‘그들’, ‘저들’과 같은 대명사로 명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해당 인물이 화자와 특정한 관계에 놓여 있거나, 여러 인물 사이에서 지시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 ‘큰형’과 같은 관계 호칭어로 전환된다. 따라서 3인칭 주어의 번역은 단순한 대명사 대응의 문제가 아니라, 인물 지시의 명료성, 관계 정보의 제시, 서사 속 인물 추적의 용이성과 관련된 번역 선택으로 볼 수 있다.

한편, 3인칭 주어 생략 및 문장 재구성 사례는 중국어 원문에 他/她/他們 등이 실제로 명시된 경우에 한해 다시 확인해야 한다. 원문에서 이미 주어가 생략된 사례는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아니므로, 해당 사례를 근거로 한국어 번역의 3인칭 주어 생략을 논의해서는 안 된다.

4) 인칭별 번역 양상의 비교

앞선 분석을 종합하면, 중국어 원문에 명시된 인칭대명사 주어는 한국어 번역에서 인칭별로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인다.

인칭	대명사 명시가 두드러지는 조건	명사·호칭어 명시가 두드러지는 조건	주어 생략이 두드러지는 조건
1인칭	화자 정체성, 행위 주체, 자기 지시, 대립·강조	해당 사례가 확인되는 범위에서 검토	화자 동일성이 지속되는 서술 및 대화 상황
2인칭	비난, 경고, 설득, 직접적 요구	가족·사회적 관계가 중요한 대화 장면	명령·요구, 화자와 청자가 명확한 대화 상황
3인칭	인물·집단의 행위 및 발화 주체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인물 관계와 지시 대상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는 경우	선행 문맥상 지시 대상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 한해 검토

〈표 6〉 인칭별 주어 실현의 주요 조건

1인칭 주어는 화자의 존재와 입장을 강조해야 하는 장면에서 대명사로 명시되지만, 화자가 이미 담화의 중심으로 확립된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 2인칭 주어는 청자에 대한 비난, 경고, 설득의 직접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명사로 명시되기도 하나, 청자와의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 호칭어로 전환되거나 명령문의 종결 표현에 의존하여 생략되기도 한다. 3인칭 주어는 화자와 구별되는 인물 또는 집단을 식별해야 하는 경우 대명사나 관계 호칭어로 명시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중국어 원문의 명시된 인칭대명사 주어가 한국어 번역에서 일률적으로 생략되거나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어 번역

에서의 주어 실현은 인칭 자체뿐 아니라 화자와 청자의 관계, 인물 지시의 명료성, 담화 속 주체의 지속성, 발화의 직접성, 서사적 긴장 등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중한 번역에서 인칭대명사 주어의 처리는 단순한 문법적 대응 관계가 아니라, 원문의 인물 관계와 담화 기능을 한국어의 표현 관습 속에서 재구성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본 연구는 루쉰의 『광인일기』 중국어 원문과 세 종의 한국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중국어 원문에 명시적으로 실현된 인칭대명사 주어가 한국어 번역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중국어 원문에서 我/我們, 你/你們/您, 他/她/他們 등이 해당 절의 주어로 직접 나타난 사례에 한정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중국어 원문에서 주어가 생략된 사례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고, 원문에 명시된 인칭대명사 주어가 한국어 번역에서 대명사로 유지되는지, 관계 호칭어나 명사구로 전환되는지, 생략되는지, 또는 문장 재구성을 통해 처리되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1인칭 대명사 주어는 화자의 정체성, 행위 주체, 자기 지시 및 타자와의 대립을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한국어 번역에서도 ‘나’, ‘내가’, ‘나는’, ‘우리’ 등의 형태로 명시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화자가 특정 행위를 수행하거나, 자신의 처지와 입장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거나, 자신과 타인 집단을 대비하는 장면에서는 원문의 1인칭 주어가 한국어 번역에서도 유지되는 경우가 확인되었다. 반면 화자가 이미 서술의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거나 대화 상황에서 발화 주체가 자명한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에서 1인칭 주어가 생략되었다. 이는 한국어 번역에서 1인칭 주어의 명시 여부가 단순한 통사적 대응이 아니라, 화자의 존재를 전면화할 필요가 있는지와 담화 맥락상 화자의 동일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짐을 보여준다.

둘째, 2인칭 대명사 주어는 청자 또는 청자 집단에 대한 비난, 경고, 설득, 요구의 직접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신’, ‘당신들’ 등의 형태로 명시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화자가 특정 집단을 향해 변화를 촉구하거나 비판하는 장면에서는 청자의 범위를 분명히 하기 위해 2인칭 대명사가 유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어 원문의 你가 특정 인물, 특히 화자의 형을 가리키는 경우에는 한국어 번역에서 ‘형’, ‘큰형’, ‘형님’과 같은 관계 호칭어로 전환되는 사례가 확인되었다. 이는 한국어 번역에서 2인칭 대명사를 직접 대응시키는 대신, 인물 관계와 사회적 거리, 발화 상황을 반영하는 호칭어를 선택하는 방식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의미한다. 또한 명령/요구 장면에서는 한국어의 종결어미만으로도 청자의 존재가 충분히 드러나므로, 원문의 명시된 2인칭 주어가 생략되는 양상이 나타났다.

셋째, 3인칭 대명사 주어는 인물 또는 집단의 행위와 발화 주체를 분명하게 제시해야 하는 경우 한국어 번역에서도 ‘그’, ‘그들’, ‘저들’ 등의 대명사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화자가 의심하거나 경계하는 인물과 집단의 행위가 서사 전개에 핵심을 이루는 장면에서는 3인칭 주어의 명시가 인물 지시와 사건 이해에 기여하였다. 한편 중국어 원문의 他가 화자의 형을 가리키는 경우, 세 번역본은 이를 ‘그’로 반복하기보다 ‘형’, ‘큰형’과 같은 관계 호칭어로 전환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러한 전환은 단순히 대명사를 다른 어휘로 교체한 것이 아니라, 등장인물 간의 관계를 구체화하고 지시 대상의 혼동을 줄이며 독자의 인물 추적을 돕는 번역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세 번역본은 중국어 원문의 명시된 인칭대명사 주어를 처리하는 방식에서 공통점과 차이를 함께 보였다. 공통적으로 1인칭은 화자 정체성의 강조 여부, 2인칭은 발화의 직접성과 청자 관계, 3인칭은 지시 대상의 명확성과 인물 관계를 중심으로 명시·생략·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일한 중국어 원문이라 하더라도 어떤 번역본은 인칭대명사를 유지하고, 다른 번역본은 호칭어로 전환하거나 생략하는 차이를 보였다. 이는 인칭대명사 주어의 번역이

기계적인 일대일 대응이 아니라, 번역자의 문체적 선호, 등장인물 관계에 대한 해석, 한국어의 담화 관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어 원문에 명시된 인칭대명사 주어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원문에서 이미 주어가 생략된 경우와 원문에는 주어가 명시되어 있으나 한국어 번역에서 생략된 경우를 구분하였다. 이를 통해 한국어 번역에서 나타나는 주어 생략을 중국어 원문의 명시 주어에 대한 번역 전략으로 보다 명확하게 분석할 수 있었다. 둘째, 한국어 번역문의 주어 실현 양상을 대명사 명시, 명사·호칭어 명시, 주어 생략, 문장 재구성으로 구분함으로써, 기존의 단순한 명시·생략 이분법으로는 충분히 설명하기 어려운 호칭어 전환과 지시 대상 구체화의 양상을 포착하였다. 셋째, 1·2·3 인칭별 분석을 통해 인칭대명사 주어의 번역이 인칭 자체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화자와 청자의 관계, 인물 지시의 명료성, 담화 맥락, 발화의 직접성 및 서사적 기능에 따라 달라짐을 확인하였다.

다만 본 연구는 『광인일기』라는 단일 작품과 세 종의 한국어 번역본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작품의 서술 방식, 인물 구성, 시대적 배경, 번역본의 출간 시기와 문체적 특성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어 원문에 명시된 인칭대명사 주어를 중심으로 분석하였으므로, 중국어 원문에서 주어가 생략된 사례와 그 한국어 번역 양상은 별도의 연구 과제로 남는다. 후속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 작품을 확대하고, 소설·신문·드라마 대본·학술 텍스트 등 다양한 장르를 포함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다수의 번역본과 대규모 병렬 말뭉치를 활용하여 인칭별 주어 실현 유형의 빈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한다면, 중한 번역에서 인칭대명사 주어의 처리 원리를 보다 일반화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하면, 중국어 원문에 명시된 인칭대명사 주어는 한국어 번역에서 단순히 유지되거나 생략되는 대상이 아니라, 담화 맥락과 인물 관계, 지시 대상의 명료성, 발화의 직접성 및 번역문 문체를 고려하여 재구성되는 요소이다. 특히 한국어 번역에서 나타나는 대명사 유지, 관계 호칭어 전환, 주어 생략 및

문장 재구성은 모두 원문의 의미와 인물 관계를 한국어의 담화 관습 속에서 자연스럽게 실현하기 위한 번역 선택으로 이해할 수 있다.

參考文獻

- 김려, 「중국어와 한국어의 인칭 대명사 번역 연구」, 부산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0.
- 김선민, 「韓中 번역의 실제」, 東國大學校 석사학위논문, 2000.
- 金慧婷, 「篇章语言学视觉下的中韩主语省略对比研究」, 上海外国语大学 박사학위논문, 2014.
- 魯迅, 「狂人日記」, 『魯迅全集』第一卷, 北京: 人民文學出版社, 2005.
- 노신(이옥연 옮김), 『광인일기』, 서울: 문학동네, 2014.
- 노신(전형준 옮김), 『아Q정전: 루쉰 소설선』, 파주: 창비, 2023.
- 노신(조관희 옮김), 『아큐정전: 루쉰의 소설』, 서울: 마리복스, 2018.
- 박창영, 「한국어 주어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백수진, 「비교문화언어학의 관점에서 본 한국어·중국어 문법 교육-인칭대명사와 지시사」, 『한중인문학연구』 32집, 한중인문학회, 2011.
- 예혼이, 「주어 생략의 한중 번역 연구: 인터넷 신문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 이연정, 「한국어 주어 교육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임소정·이아형, 「한중 번역에서의 인칭대명사 주어 처리 양상 대조 - 소설 《프라자호텔》을 중심으로」, 『중국문학』 118, 2024.
- 정기, 「코퍼스를 이용한 인칭 대명사번역전략 연구 - 심종문(沈从文) 변성(邊城)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22.
- JIA SHEN, 「한국어와 중국어의 주어 대조」,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최윤곤·주선, 「한국어 주어 생략문과 무주어문의 중국어 번역 양상: <한겨레신문> 사설을 중심으로」, 『한중인문학연구』 55, 한중인문학회, 2017.
- 韓希昌, 「从教学观点对比韩汉人称代词」, 『中國言語研究』 第34輯, 2011.

Abstract

A Study on the Patterns of Explicitation and Omission of Personal Pronoun Subjects in Chinese-Korean Translation — Focusing on the Translated Versions of A Madman's Diary

Jia Shuqing · Lee, A Hyoung

This study analyzed how the explicit personal pronoun subjects in the Chinese source text of Lu Xun's A Madman's Diary are realized across three Korean translated versions. The correspondence patterns in the Korean translations were classified into four categories: explicit use of pronouns, explicit use of nouns or terms of address, subject omission, and sentence restructuring.

The results indicated that first-person subjects tend to be explicitly stated when emphasizing the speaker's identity or agency, whereas they are generally omitted in discourse contexts where the speaker's identity is self-evident. Second-person subjects were either explicitly maintained as pronouns in scenes involving criticism, warning, or persuasion, or converted into terms of address such as 'brother' (hyung, hyungnim) to reflect the relational dynamics between characters. Third-person subjects were primarily realized as either pronouns or relational terms of address to clarify the specific character or group being referred to. By focusing exclusively on the explicit subjects in the source text, this study aimed to demonstrate that the translation of personal pronoun subjects in Chinese-Korean literary translation is a strategic choice intricately linked to discourse context, character relationships, and referential clarity.

Key words : Chinese-Korean translation, personal pronoun subject, explicit subject, subject omission, relational terms of address, A Madman's Diary, literary translation

투 고 일 : 2026. 7. 10. / 심 사 일 : 2026. 7. 15. ~ 2026. 8. 15. / 게재확정일 : 2026. 8. 20.

